『中國學』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14
pp.229-244 ISSN : 1229-9618

曾鞏의 歷史觀과 詠史詩*

吳憲必**

【목 차】

1. 서론
2. 曾鞏의 歷史觀
3. 曾鞏 詠史詩의 내용
   1) 역사 인물에 대한 褒貶
   2) 역사 사건에 대한 평가
4. 결론

【초록】

本稿는 曾鞏의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평가하는 단계의 일환으로, 그의 詠史詩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曾鞏의 詠史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제별로 크게 역사 인물에 대한 褒貶, 역사 사건에 대한 평가로 분류할 수가 있다. 曾鞏은 詠史詩 속에서 諸葛亮, 管仲, 鮑叔牙, 伯夷, 叔齊 등의 忠臣과, 揚雄, 顔回, 子貢, 子思 등의 학자, 陶淵明, 李白 등의 문인을 비롯한 역사 인물을 평가함으로써 北宋 당대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인물의 인생역정을 반추하면서 자신을 省察하고자 하였다. 또한 曾鞏은 역사 사건과 역대 왕조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를 詠史詩의 중심 제재로 삼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以史鑑今하고자 하였다. 曾鞏 詠史詩의 특징으로는 역사 인물이나 역사 사건을 짧은 편폭 속에서 함축적으로 簡明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을 꼽을 수 있겠다.

【키워드】曾鞏, 詠史詩, 歷史人物, 歷史事件, 以史鑑今

* 본 연구는 2017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ohp@duksung.ac.kr)

1. 서론

曾鞏(1019-1083)은 北宋 시대 唐宋八大家의 일원으로, 詩名보다는 文名으로서 名聲이 알려진 文人이었다. 따라서 曾鞏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문장가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문 분야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曾鞏의 시에 대해서는 역대로 부정적인 비평이 많았기 때문에 시 분야에 대한 연구는 微微하다.[1] 그러나 元代 方回는 曾鞏의 시에 대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다.

> 子固(曾鞏의 字)의 시는 西崑體의 典故를 많이 늘어놓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일소하고 모두 없어지게 하였다. 질박하고 청신하고 온건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2]

윗 글은 北宋 초기 詩壇을 주도하며 對偶와 典故를 多用하여 형식적인 면에서는 화려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부실한 西崑體에서 曾鞏이 탈피하여 질박하고 청신한 시를 창작했다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曾鞏이 北宋 中期에 이르러 歐陽修를 주축으로 梅堯臣, 蘇舜欽,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이 주창하고 실천한 詩歌革新運動의 일원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淸代 姚瑩도 曾鞏의 詩歌가 歐陽修, 王安石에 버금간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고, 錢鍾書도 唐宋八大家 중에서 曾鞏의 시가 蘇洵, 蘇轍보다 훨씬 뛰어나며, 七言絶句는 더욱 王安石의 風致가 있다고 평가를 높게 하였다. [3]

> 文名이 詩名 曾子固를 덮어버렸으나, (詩의)재능을 논하자면 구양수, 왕안석에 버금간다. 元豐類稿[4]를 처음부터 읽어보니 누군가가 해당화에 비견한 것을 한스러워하노라.[5]

> 唐宋八大家에 대해 논하자면, 그(曾鞏)의 시는 蘇洵, 蘇轍 부자의 시보다 훨씬 뛰어나며, 七言絶句는 더욱 王安石의 風致가 있다.[6]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曾鞏의 시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그의 문집 속에 적지않은 詩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宋 詩壇에서 曾鞏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시인으로서의 曾鞏의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로서 「曾鞏의 사

---

1) 拙稿, 「曾鞏의 사회시 내용 분석」, 『중국학논총』, 제58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7.12, pp.174-175.
2) 方回, 『瀛奎律髓』 卷16: 子固詩一掃崑體所謂餖飣刻畫咸無之. 平實淸健, 自爲一家.
3) 拙稿, 「曾鞏의 사회시 내용 분석」, 위의 책, pp.174-175.
4) 『元豊类稿』는 曾巩의 詩文集으로, 宋 神宗 元豊 年间에 발행되었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모두 50卷이며 이 50卷 외에 『续稿』 40卷과 『外集』 10卷이 있었으나, 宋이 南渡 후에 『续稿』와 『外集』은 逸失되어 전하지 않음.
5) 姚瑩, 『後湘詩集·論詩絶句』: 文掩詩名曾子固, 論才合於亞歐、王. 元豐類稿從頭讀, 遺恨何人比海棠. ※ '遺恨何人比海棠.'의 내용은 彭淵才가 해당화가 향이 없음을 한스러워 하고, 曾鞏이 시에 능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한 것을 인용한 것임. (『釋惠洪, 冷齋夜話』卷九 : 彭淵才平生五大恨事. 第一恨鰣魚多骨, 第二恨金橘太酸, 第三恨莼菜性冷, 第四恨海棠無香, 第五恨曾子固不能作詩.)
6) 錢鍾書, 『宋詩選註』: 就八家而論, 他的詩遠比蘇洵、蘇轍父子的詩好, 七言絶句更有王安石的風致.

회시 내용 분석」[7]을 진행하였고, 그 후속 연구로 본고에서는 曾鞏의 詠史詩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0여 년의 기간 동안 史官職을 역임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남달랐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그의 歷史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역사인물·역사사건이 그의 詠史詩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形象化되었는가를 고찰하는 데 본고의 집필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曾鞏의 歷史觀

曾鞏은 39세에 蘇軾, 蘇轍과 함께 進士에 급제한 이후, 41세에 太平州司法參軍이 되었으나, 중앙관리로서는 주로 史官職을 담당하였다. 42세에 歐陽修의 천거로 編校史館書籍에 拜受되었고, 館閣校勘集賢校理로 전직하여 50세까지 역임하며 『英宗實錄』을 編修하였다. 그 후, 11여 년간 지방관리를 역임하다가 63세에 史館修撰이 되어 神宗의 명을 받아 『五朝國史』 편찬을 주관하였다. 그는 통틀어서 10여 년의 기간 동안 史官職을 역임하면서 적지않은 古籍과 史書를 校勘하였고, 본인이 직접 序文을 썼다.[8] 序文에서 학술의 내용을 구별하고, 源流를 考究하며, 先聖의 道를 선양하고, 천하 治亂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歷史觀을 추정해볼 수 있겠다.[9]

일반적으로 시인들은 詠史詩를 통하여 역사인물·역사사건 등을 재조명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以史鑑今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 시인의 詠史詩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인의 歷史觀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曾鞏의 歷史觀은 儒家 道德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 대체로 史書란 천하를 다스리는 道理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10]

역사를 배우는 것은 장차 한 시대의 득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우리(신하)들이 梁나라의 사실에 기인하여 성인은 얻게 되고 불교는 잃게 된 까닭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군자가 불교를 거절하는 이유가 外物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면에 뜻을 둔 사람은 아마 이것(성인의 도)을 그것(불교)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11]

이 글에서는 南朝 梁나라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불교를 비판하고 儒家의 道理를 통치의

---

7) 拙稿, 「曾鞏의 사회시 내용 분석」, 위의 책.

8) 「新序目錄序」, 「梁書目錄序」, 「列女傳目錄序」, 「禮閣新儀目錄序」, 「戰國策目錄序」, 「陳書目錄序」, 「南齊書目錄序」, 「唐令目錄序」, 「徐幹中論目錄序」, 「說苑目錄序」, 「鮑溶詩集目錄序」.

9) 楊佐經, 「試論曾鞏的史學觀」, 『曾鞏研究論文集』, 江西人民出版社, 1986, pp.161-162.

10) 『曾鞏集』, pp.177-178, 「梁書目錄序」: 蓋史者, 所以明夫治天下之道也.

11) 『曾鞏集』, pp.177-178, 「梁書目錄序」: 夫学史者, 将以明一代之得失也, 臣等故因梁之事, 而为著聖人之所以得及佛之所以失以传之者, 使知君子之所以距佛者, 非外而有志於内者, 庶不以此而易彼也.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史書 집필의 목적도 儒家之道를 밝히는 데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실 梁 武帝는 정치를 放棄하고 불교에 빠져들어 막대한 재물을 보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梁나라의 재정은 궁핍해졌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수탈과 착취가 행해졌던 것이다. 결국 儒家 聖人의 도리를 추구하지 않고, 불교에 빠진 폐해로 인하여 梁나라가 亡國에 이르게 되었다고 피력하면서 역사관을 전개하고 있다.

> 대체로 陳나라의 실체를 살펴보면, 대개 그럭저럭 되는대로 하는 것을 일체의 방편으로 삼아서, 先王의 紀綱과 예의, 풍속의 미덕, 통치의 법도가 후대에 드러내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권력을 합병하고 계책을 숭상하여 관리를 임용하는 데 투명하고, 인재를 공경하고 아꼈으니 이는 처음에 흥성하게 된 원인이고, 간신에게 현혹되고 애첩에게 빠져 우환을 잊고 욕망을 제멋대로 부렸으니 이는 끝내 망하게 된 원인이다. 흥망의 단서는 자기가 초래하지 않은 것이 없다.[12]

위 글은 南朝 陳나라의 敗亡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以史爲鑑'을 강조하고 있다. 陳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가 제5대 황제인 後主에 이르러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後主는 국사는 돌보지 않고 寵姬들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隋나라가 성문 앞에 당도했을 당시에도 성 안에서는 後主와 寵姬, 문인들은 모두 만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13] 결국 陳나라의 敗亡의 원인은 바로 儒家 道德 즉 先王의 紀綱과 예의, 풍속의 미덕, 통치 법도의 不在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曾鞏은 또한 古今의 治亂興衰, 是非得失을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후대에 借鑑이 되기 위해서는 史家의 資質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是非得失과 治亂興亡의 까닭을 法道와 鑑戒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얻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으니, 이것이 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인 것이다. 그러한 즉 일을 맡은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곧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본래의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며, 혹은 도리를 분석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도 한다. ……
>
> (나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논해본 적이 있다. 고대의 이른바 훌륭한 史家란, 그 총명함은 반드시 족히 萬事의 이치를 두루 알고, 그의 도리는 반드시 족히 천하의 운용에 적응할 수 있으며, 그의 지혜는 반드시 족히 알기 어려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의 문장은 반드시 족히 묘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했으니, 그런 연후에야 그가 비로소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14]

---

12) 『曾鞏集』, pp.185-186, 「陳書目錄序」: 夫陳之爲陳, 蓋偸爲一切之计, 非有先王經紀禮義風化之美, 制治之法, 可章示後世. 然而兼權尚計, 明於任使, 恭儉愛人, 則其始之所以興; 惑於邪臣, 溺於嬖妾, 忘患縱欲, 則其終之所以亡. 興亡之端, 莫非自己致者.

13) 杜牧, 「臺城曲」: 門外韓擒虎 樓頭張麗華. (성문 밖에는 한금호 장군이, 누각 위에는 장려화가 있네). 陳의 後主와 寵妃 장려화가 누대 위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을 때, 隋나라의 장군 한금호가 성을 공격하여 陳나라를 멸망시킨 故事.

14) 『曾鞏集』, pp.187-188, 「南齊書目錄序」: 將以是非得失、興壞理亂之故而爲法戒, 則必得其所託, 而後能傳於久, 此史之所以作也. 然而所託不得其人, 則或失其意, 或亂其實, 或析理之不通, 或設辭之不善.…… 嘗試論之, 古之所謂良史者, 其明必足以周萬事之理, 其道必足以適天下之用, 其智必足以通難知之意, 其

曾鞏은 위의 글에서 史家의 資質을 강조하면서 훌륭한 史家의 조건으로, 明理, 適用, 通義, 發情을 꼽고 있다. 이러한 史家에 대한 요구는 唐代 劉知幾가 제시한 才, 學, 識보다 가일층 강화되었다고 하겠는데, 특히 추가로 適用 즉 經世致用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史家가 갖춰야할 요건으로 曾鞏이 제시한 明理, 適用, 通義, 發情은 바로 儒家 道統의 계승자인 曾鞏에게 있어서 '文以載道' '道文並重' 사상의 史學上의 體現이라고 하겠다.[15]

3. 曾鞏 詠史詩의 내용

1) 역사 인물에 대한 褒貶

曾鞏이 詠史詩를 통하여 평가한 역사 인물은 적지 않다. 이들 인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諸葛亮, 管仲, 鮑叔牙, 伯夷, 叔齊 등의 忠臣, 揚雄, 顔回, 子貢, 子思 등의 학자, 陶淵明, 李白 등의 문인을 들 수 있다. 曾鞏은 이런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北宋 당대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먼저 曾鞏이 詠史詩 속에서 평가한 忠臣의 면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孔明>[16]
稱吴稱魏已纷纷, 吴라 칭하고 魏라 칭하고 이미 어수선한데
渭水西边独汉臣. 위수 서쪽에 홀로 한나라 신하가 있었네.
平日将军不三顾, 평상시에 장군은 삼고초려되지 않고
寻常田里带经人. 평소 밭에 가면서 경전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었지.

魏, 蜀, 吳 삼국시대에 隆中이란 마을에 은거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학문을 연마한(帶經而鋤) 諸葛孔明이 劉備의 三顧草廬가 없었다면 정치가, 군사가로서 명성을 날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읊고 있다. 이것은 바로 借古諷今의 수법으로, 宋代 당시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지 못하는 爲政者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隆中」[17]시에서는 諸葛亮의 事蹟을 통하여 曾鞏 자신의 懷才不遇한 심정을 表露하고 있다.

志士固有待, 뜻을 지닌 선비는 본래 때를 기다리며
显默非苟然. 현달과 은거를 함부로 하지 않았네.

文必足以發難顯之情, 然後其任可得而稱也.

15) 葉建華, 「曾鞏史學思想簡論」, 『中州學刊』, 1990年 第2期. p.123.

16) 『曾鞏集』, p.88. ※本稿는 『南豊先生元豐類稿』 淸 康熙56年 長洲 顧崇齡刻本을 바탕으로, 陳杏珍, 晁繼周가 點校하여 2004년 中華書局에서 발간한 『曾鞏集』을 저본으로 하였음.

17) 『曾鞏集』, p.73.

孔明方微时, 공명은 미천할 때
息驾隆中田. 수레 모는 것을 멈추고 융중의 밭으로 갔네.
出身感三顾, 삼고초려에 감동하여 신명을 걸고 나서니
鱼水相後先. 물고기와 물이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였네.[18]
开迹在庸蜀, 개국 공로의 자취가 용, 촉에 있고
欲正九鼎迁. 구정 옮기는 것을 바로잡으려 하였네.
垂成中兴业, 왕실 중흥의 업적을 거의 다 이루고
復汉临秦川. 한나라를 부흥시키려 진천에 이르렀네.
平生许與际, 평생 칭송받을 때
独比管乐贤. 오로지 管仲, 乐毅같은 현인과 비견되리라.
人材品目異, 인재의 인품이 남달라
自得岂虚传? 스스로 득의하였는데 어찌 헛되이 전해지리오?

曾鞏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 제갈량이 三顧草廬하며서 자신에게 知遇之恩을 베푼 劉備를 위해 쌓은 공적을 表揚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諸葛亮을 管仲, 樂毅에 비견하고 온몸을 내던져 충성하는 제갈량의 자태 속에서 重用되지 못하여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기탁하고 있다. 사실 曾鞏은 과거시험에 세 차례 실패하였고, 39세의 늦은 나이에야 과거에 급제하였다. 41세에 太平州司法參軍이 되었고, 42세에 編校史館書籍에 拜授되고 이어서 館閣校勘集賢校理로 옮겨가서 史官을 역임하였다. 그 후 越州, 齊州, 襄州, 洪州, 福州, 明州, 亳州 등의 知州를 거의 11년 간이나 전전하며 地方 官吏로서 善政을 베풀었지만, 조정에 重用되지 못하였다. 要職에 기용되지 않은 이유로는 曾鞏에 대한 呂公著의 폄하로 인한 神宗의 低評價를 들 수 있겠다.[19]

이어서 「鮑山」[20]시에 주목하여 보자.

雲中一點鮑山青, 구름 속에 한 점의 포산이 푸르고
东望能令两眼明. 동쪽으로 바라보니 두 눈이 밝아지는구나!
若道人心是矛戟, 사람의 마음이 창과 방패라고 한다면
山前那得叔牙城? 산 앞에 어찌 숙아성이 있을 수 있겠나?

이 시는 曾鞏이 熙寧4년(1071) 齊州知州로 있을 때, 鮑山 아래 있는 叔牙城[21] 유적에 올라 조망하며 춘추시대 管仲과 鮑叔牙의 행적을 회고하고 있다. 鮑山은 춘추전국시대 齊나라의

18) 『三國志·蜀書·諸葛亮傳』: 관우와 장비 등은 (유비의 제갈량에 대한 지나친 환대에)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에 유비가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말했다. "내가 제갈량을 얻게 된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네. 자네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게." 이에 관우와 장비는 (불평을)그쳤다. (關羽、張飛等不悅. 先主解之曰, 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願諸君勿復言. 羽飛乃止.)

19) 『宋史·曾鞏傳』: 呂公著가 일찍이 神宗에게 고하기를, "曾鞏의 사람됨은 義를 행함이 政事를 행함만 못하고, 政事는 文章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크게 등용되지 않았다.(呂公著嘗告神宗, 以鞏爲人行義不如政事, 政事不如文章, 以是不大用云.)

20) 『曾鞏集』, p.116.

21) 鮑山은 지금의 山東省 濟南 동쪽에 있는데, '管鮑分金'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鮑山'이라 일컬었으며, 鮑山 아래 鮑叔牙의 封城이 있었으므로 '叔牙城'이라 칭했음.

管仲과 鮑叔牙가 동업하여 이익을 나누던 바로 그 현장이다. 鮑叔牙는 管仲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가난때문이라고 여기고 이해했다는 '管鮑分金'의 고사를 떠올리며 진정한 우정을 나눈 管鮑之交의 美談을 묘사하고 있다.[22] 鮑叔牙의 배려로 두터워진 두 사람의 우정은 벼슬길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鮑叔牙의 양보와 천거로[23] 齊 桓公은 管仲을 재상으로 삼았고, 훗날 管仲이 齊 桓公을 도와 春秋五霸의 覇者로 만들게 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曾鞏은 이 시 속에서 管鮑之交의 사례를 들면서 爲政者들에게 반목과 질시를 탈피하여 共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다음의「豪傑」[24]시에서는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義人인 伯夷와 叔齊의 忠節을 表揚하고 있다.

老哺薇蕨西山翁, 늙어서 고사리와 고비를 먹던 수양산의 노인
乐倾瓢水陋巷士. 즐거이 표주박의 물을 기울이던 누추한 시골 선비.
不顾無復问周公, 돌아보지 않으며 다시는 주공에 대해 묻지 않고
可归乃独知孔子. 뜻하는 바는 오로지 공자를 이해하는 것이었네.
自期动即重丘山, 산처럼 무겁게 움직이기를 스스로 바랐는데
所去何啻轻糠秕? 가는 곳을 어찌 쭉정이와 겨처럼 가볍게 했으리오
取合悠悠富贵兒, 영합하고 비속하여 부귀한 사람들이
岂知豪傑心之耻? 어찌 호걸을 이해하고 마음 속으로 부끄러워 하랴?

제1구에서는 周의 武王이 文王의 喪中에 殷의 紂王을 정벌하는 것을 보고 부자지간의 예의와 군신지간의 의리를 들어 만류하다가 제지당하자, 首陽山에서 周나라의 곡식을 거부하고 고사리와 고비로 연명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伯夷와 叔齊의 不事二君의 節操를 頌揚하고 있다. 제2구에는 공자처럼 공자의 애제자인 顔回의 安貧樂道를 稱頌하고 있다.[25] 제7, 8구에서는 北宋 당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귀영달을 좇는 무리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曾鞏은 이 시 속에서 忠節을 지킨 伯夷, 叔齊와 빈궁하면서도 修德을 추구한 顔回의 형상에 자신의 인생철학을 기탁하였던 것이다.

曾鞏은 또한 시 속에 顔回을 비롯한 揚雄, 子貢, 子思 등 학자들의 行績을 반영하여 당대의 귀감으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먼저「揚顔」[26]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자.

---

22) 曾鞏은 「論交」(『曾鞏集』, p.4.) 시에서도 '夷吾鮑叔贫贱间, 分财亦不辞多取. '라고 하면서 '管鮑分金'의 우정을 읊었다.

23) 본래 齊 桓公은 鮑叔牙를 宰相에 임명하려 했지만, 鮑叔牙는 齊 桓公에게 작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신을 재상으로 삼아도 충분하지만,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려면 管仲을 재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중을 천거했다.

24) 『曾鞏集』, p.6.

25) 『論語·雍也』: 공자가 말하였다.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여!(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

26) 『曾鞏集』, p.7.

扬雄纂言準仲尼, 양웅의 저술은 공자를 모범으로 삼았고
颜氏为身慕虞舜. 안회는 수신하는 데 순임금을 우러러 본받았네.
千里常忧及门止, 천리에서 우환이 있을 때 문에 이르러 머물렀고[27]
为山更欲一簣进. 산을 만듦에 다시 한 삼태기를 부으려고 했었네.[28]
小人君子在所蹈, 소인인지 군자인지는 행동하는 바에 있고
烈士贪夫不同徇. 열사와 탐욕이 많은 사내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법.
安得蠢蠢尚自恕, 어찌 아둔하게 자신을 용서하랴?
百年过眼猶一瞬. 백년도 한 순간과 같이 짧은데??

이 시는 먼저 揚雄의 立言과 顔回의 立德을 흠모하면서 揚雄과 顔回의 修身求道하는 근면한 자태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어서 君子와 小人, 烈士와 貪夫를 대비함으로써 시인이 추구하는 인생관을 피력하고 있다.

다음의 「詠史二首」其二[29] 에서는 孔子의 제자인 賜(字는 子貢)와 子思의 행적을 대비하여 참된 人物像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賜也相國尊, 사는 재상이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子思終不慕. 자사는 끝내 흠모하지 않았네.
乃知古今士, 바로 고금을 아는 선비는
輕重復內顧. 귀하고 천함을 내면에서 돌아봐야 하리.

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子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사업에 능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언변과 정치 수완이 뛰어나 魯나라, 衛나라의 재상을 지낸 賜에 대해서는 富貴榮華를 추구한 인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에 비해 공자의 손자인 子思에 대해서는 過不及이 없는 중용을 지향하는 內省的 수양, 실천적인 일상윤리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바로 시의 제3, 4구에서 曾鞏은 富貴榮華를 추구하지 않고, 子思처럼 內省的 수양을 지향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는 것이다.

曾鞏은 또한 시를 통하여 陶淵明, 李白 등 문인들의 인생역정을 반추하면서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過彭澤」[30]
淵明昔抱道, 연명은 옛날 正道를 품고서
爲貧仕玆邑. 이 마을의 가난한 벼슬아치였었네.

---

27) 공자가 陳나라와 蔡나라 사이에서 困厄을 당할 때, 당시 門下에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가리키는데, 특히 애제자인 顔回가 患難 속에서도 공자를 추종한 것을 가리킴.
28) 『論語·先進』: 공자가 말하였다. (학문을)비유하면 산을 만듦에 흙 한 삼태기를 (붓지 않아 산을) 못 이루고서 중지하는 것도 내 자신이 중지하는 것과 같으며, 비유하면 (산을 만드는 데) 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처음 붓는 것이라 하더라고 나아감은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과 같다.(子曰: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進吾往也.)
29) 『曾鞏集』, p.40.
30) 『曾鞏集』, pp.42-43.

幡然復谢去, 마음을 돌리고 다시 물러나서 떠났으니
肯受一官縶? 기꺼이 벼슬의 굴레에 억매려 했을리가?
予觀長者忧, 어르신의 근심을 살펴보니
慷慨在遗集. 강개함이 유집에 남아 있네.
岂同孤蒙人, 어찌 고루하고 몽매한 사람과 같았으랴!
剪剪慕原隰. 오로지 넓은 들판을 사모했네.
遭时乃肥遯, 때에 맞춰 은거하니
兹理固可执. 이러한 도리를 당연히 지킬 수 있었네.
独有田庐归, 홀로 초막으로 돌아왔거늘
嗟我未能及. 아! 나는 아직 이를 수가 없구나!

陶淵明이 縣令을 지낸 彭澤을 지나면서 그를 회고하고 있다.[31] 시는 전반부에서 陶淵明이 벼슬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자태가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다. 또한 도연명의 은거는 세속의 名利에서 탈피하여 正道를 지키려는 의지의 체현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曾鞏 역시 이러한 陶淵明이 추구하는 인생관을 흠모하고 있지만, 스스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기탁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하여 曾鞏이 흠숭하는 역사인물의 인생역정을 삶의 모태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曾鞏 詠史詩의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다.

曾鞏은 李白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을 省察하기도 하였다.

「謁李白墓」[32]
世间遗草三千首, 세상에 남긴 유고 삼천 수이건만
林下荒坟二百年. 수풀 속 황폐한 무덤만 이백년이 흘렀네.
信矣辉光争日月, 진실이로다! 찬란한 빛, 해와 달과 다투었고
依然精爽动山川. 의연하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산천을 움직였네.
曾無近属持门户, 일찍이 가문을 지킬 근친이 없어
空有乡人拂几筵. 쓸쓸히 마을 사람이 궤연을[33] 청소했네.
顾我自惭才力薄, 나를 돌아보니 점점 재능이 엷어지고
欲将何物弔前贤? 장차 무엇으로 예전 존현을 조문해야 하나?

이 시는 曾鞏이 宋 仁宗 嘉祐 2년(1058년), 太平州(지금의 安徽省 當塗縣) 司法參軍이었을 때, 李白의 묘를 참배하고 쓴 작품이다. 曾鞏은 해와 달과 다툴 정도로 청사에 빛나는 3,000여 수의 시 작품을 남겼다고 李白에 대해 仰慕의 情을 나타내고 있다. 曾鞏은 集賢院 校理 在任 기간에 『李太白詩集』을 교감하였고, 「李白詩集後序」에서 李白의 詩에 대하여 高度의 好

31) 도연명이 彭澤縣令에 재임하고 있을 당시, 郡에서 파견나온 督郵를 대접해야 했는데, "어찌 五斗米 때문에 허리를 굽혀 향리의 소인배에게 알랑거리겠는가!(吾不能爲五斗米折腰, 拳拳事鄉里小人邪)"라고 말하고는 80여일 만에 현령을 그만두고 은거를 시작한 이후로는 陶淵明은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음.
32) 『曾鞏集』, p.89.
33) 궤연: 혼백이나 신위를 모신 자리와 그에 딸린 물건들.

評을 하였다.[34] 지금은 황폐하게 덩그라니 남아있는 李白의 묘지 앞에서 덧없는 인생무상을 읊고 있다. 바로 생전의 찬란했던 李白의 모습과 황폐한 무덤을 대비시킴으로써 시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2) 역사 사건에 대한 평가

曾鞏은 역사적인 사건과 역대 왕조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를 詠史詩의 중심 제재로 삼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以史鑑今하고자 하였다.

먼저 「明妃曲 二首」[35]를 살펴보기로 하자.

其一
明妃未出汉宫时, 명비가 아직 한나라 궁전을 떠나지 않았을 땐
秀色倾人人不知. 빼어난 경국지색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
何况一身辭汉地, 더군다나 홀몸으로 한나라 땅을 하직하며
驱令萬里嫁胡兒. 강제로 만리 오랑캐 사람에게 시집보내졌네.
喧喧杂虏方满眼, 시끌법적한 오랑캐만 눈에 가득하니
皎皎丹心欲语谁? 결백한 진심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리오?
延寿尔能私好恶, 모연수가 좋고 미워함을 사사로이 할 수 있었으니
令人不自保妍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지키지 못하게 했네.
--------- ---------

其二
蛾眉絕世不可尋, 어디가도 찾을 수 없는 절세미인이라
能使花羞在上林. 상림원의 꽃들에게 부끄럽게 하는구나!
自信無由汚白玉, 스스로 믿고 백옥을 더럽힐 이유가 없어
向人不肯用黃金. 화공에게 황금을 쓰려고 하지 않았지.
一辭椒屋風塵遠, 후궁의 궁전과 고별하고 풍진 속에 멀리 떠나
去託氊廬沙磧深. 사막이 깊은 게르에 기탁했지.
漢姬尚自有妬色, 한나라 궁녀들도 일찍이 질투했거늘
胡女豈能無忌心? 흉노 여자들이 어찌 시기심이 없었으리오?
直欲論情通漢地, 심정을 솔직하게 한나라 땅에 전하고 싶었으나
獨能將恨寄胡琴. 오로지 원한을 비파에 부칠 수 밖에 없었네.
但取當時能托意, 단지 당시 뜻을 기탁할 수 있는 이를 구했지만
不論何代有知音. 어느 시대인들 절친한 친구가 있었으리오?
長安美人誇富貴, 장안의 미인은 부귀를 과시하지만
未央宮殿競光陰. 미앙궁전에서 세월을 다툴 뿐이었지.

---

34) 『曾鞏集』, pp.193-194 : 이백의 시는 유사한 사물과 의미를 인용하여 비록 법도에 맞는 것이 적지만, 그의 시어는 자유분방하고 웅장하여 거의 여느 시인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닌데, 근세에는 그와 같은 시인이 없었다.(白之詩連類引義, 雖中於法度者寡, 然其辭閎肆雋偉, 殆騷人所不及, 近世所未有也.)

35) 『曾鞏集』, pp.58-59.

豈知泯泯沈烟霧, 어찌 짙은 연무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으랴!
獨有明妃傳至今. 오로지 명비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네.

이 시는 漢나라 元帝 때의 궁녀인 王昭君이 흉노와의 친화정책을 위해 흉노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역대 이래로 많은 시인들이 '王昭君出塞故事'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宋代에는 王安石이 「明妃曲」二首를 짓자, 歐陽修, 司馬光[36] 그리고 曾鞏 등이 和作詩를 남겼다. 曾鞏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畫工 毛延壽에게 뇌물을 바쳐서까지 元帝에게 간택되려고 하지 않은 王昭君의 자태를 부각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왕소군은 흉노로 시집간 비련의 여인이었지만, 흔적없이 사라지고 만 장안의 궁녀들과 달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曾鞏은 또한 이 시 속에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밟은 왕소군의 형상에 시인 자신을 이입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대로 知遇를 받지 못한 王昭君과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북송 당시 인재 발탁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가하면,어려운 처지 속에서 진정한 知音은 더욱 찾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37]

다음의 「晩望」[38]에서는 楚나라 懷王이 屈原의 直諫을 수용하지 않고, 秦나라의 회유에 말려들어 나라를 쇠망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반추하면서 시인이 몸담고 있는 北宋의 상황을 直視하고 있다.

蠻荊人事幾推移, 초나라의 인간사 얼마나 바뀌었는지
舊國興亡欲問誰? 옛나라의 흥망을 누구에게 물어보랴?
鄭袖風流今已盡, 정수의 풍류도[39] 지금은 이미 다하고
屈原辭賦世空悲. 굴원의 사부만 세간에 비통스럽네.
深山大澤成千古, 깊은 산 큰 못은 장구한 역사를 말하지만
暮雨朝雲又一時. 저녁 비 아침 구름은[40] 일시적일 뿐이라네.
落日西樓憑檻久, 황혼 무렵 서쪽 누대 난간에 오래 기대니
閑愁唯有此心知. 공연한 수심을 오로지 이 마음이 알리라.

제1, 2구에서 秦나라가 楚나라와 齊나라의 우호관계를 이간질하여 楚를 병탐하려는 의도에

---

36) 拙稿, 「司馬光의 詠史詩」, 『中國學論叢』, 43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4.02. pp.124-125 참조.
37) 曾鞏은 18세 때, 부친이 상사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여 파직된 이후 어려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과거시험에도 네 번 도전 끝에 급제하여 늦은 나이인 39살에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지만, 神宗 때 신종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고, 新法 시행과정에서도 왕안석과 의견 충돌이 많았다. 결국 순탄하지 못한 인생 역정은 그로 하여금 울분과 고단의 연속이었다.
38) 『曾鞏集』, pp.84-85.
39) 鄭袖는 楚나라 懷王에게 총애를 받았던 후궁의 이름. 당시 張儀가 楚나라를 달래어 齊나라와 이간시키는 한편 秦나라 편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懷王이 張儀를 의심하여 장차 죽이려 하자, 張儀는 懷王의 총애를 받던 靳尙과 모의하여 鄭袖를 이용하여 懷王을 농락하여 張儀를 돌려보내게 만드는 한편, 秦나라와 친교를 맺고 齊나라와 절교를 하도록 하였음. 얼마 후에 楚나라는 졸지에 고립이 되는 상황이 되어 결국 秦나라에 의하여 패망하게 되었음.
40) 楚나라 懷王과 巫山神女가 密會를 나누었다는 巫山之夢에서 神女는 아침에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懷王을 그리워했다는 故事.

昏庸한 楚 懷王이 말려들어 楚나라를 패망하게 된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懷王의 은총을 받던 후궁 鄭袖의 자취도 사라지고 말았건만, 秦나라와의 和親을 반대하다가 추방당한 屈原의 비통스런 辭賦는 당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읊으면서 屈原을 추모하고 있다. 제5, 6구에서는 '深山大澤'과 '暮雨朝雲'을 對比함으로써 무궁무진한 자연과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屈原의 直諫을 배척함으로써 국가의 패망을 초래한 楚 懷王의 우매한 역사를 예시함으로써 당시 北宋의 황제에게 勸戒하고 있는 것이다.

「垓下」[41]에서는 楚漢爭霸를 소재로 楚나라 項羽의 패망을 읊고 있다.

三傑同歸漢道興, 세 인걸이 같이 유방에게 돌아가니 漢의 운세는 흥했지만
拔山餘力爾徒矜. 산을 뽑고도 남을 힘이라고 그대는 과시했지.
泫然垓下眞兒女, 해하에서 눈물을 흘린 항우와 우희![42]
不悟當從一范增. 당연히 범증을 따라야 했음을 깨닫지 못했지.

제1구는 漢三傑인 蕭何, 張良, 韓信이 漢 高祖 劉邦을 도와 楚나라를 멸망시키고, 漢나라를 開國하여 흥성하도록 공헌한 역사적 상황을 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제2, 3구에서는 項羽의「垓下歌」처럼, 垓下 전투에서 漢나라의 四面楚歌의 계략에 빠져 패망하고 만 楚나라의 비참한 운명을 읊고 있다. 제4구에서는 楚나라 멸망의 원인을 '鴻門의 연회'에서 "劉邦을 죽이지 않으면 後患이 있다"는 范增의 諫言을 듣지 않은 項羽의 失策으로 돌리고 있다. 曾鞏은 이 시를 통하여 亡國의 역사적 사례를 반영함으로써 北宋 당시의 통치자에게 賢臣을 배척하지 말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詠虞姬」[43]에서는 楚漢爭霸의 역사적 사건이 더욱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묘사된다.

鴻門玉斗紛如雪, (범증이)홍문에서 옥술잔을 눈처럼 어지럽게 날려버리고
十萬降兵夜流血. 십만 항복한 병사들은 밤새 피를 흘렸네.
咸陽宮殿三月紅, 함양 궁전이 석달이나 붉게 타올라
霸業已隨煙盡滅. 패업은 이미 연기 따라 다 사라져버렸네.
剛强必死仁義王, 모질고 강하면 반드시 죽고 어질고 의로우면 왕이 되거니
陰陵失道非天亡. 음릉에서 길을 잃은 건 하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네.
英雄本學萬人敵, 영웅은 본래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였는데
何用屑屑悲紅粧? 어찌 구구하게 미인때문에 슬퍼하나?
三軍散盡旌旗倒, 삼군이 다 흩어지고 군기도 쓰러지니
玉帳佳人坐中老. 옥 장막의 미인은 앉아서 늙어가네.
香魂夜逐劍光飛, (우희의)향기로운 영혼이 밤에 칼빛을 따라 날아가니

---

41) 『曾鞏集』, p.116.

42) 項羽의「垓下歌」: 힘은 산도 뽑을 만하고, 기개는 세상을 덮었으나.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가지 않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하면 좋을까!(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騶不逝. 騶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43) 程千帆·吳新雷 著,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8, pp.97-98 : 이 시는 『曾鞏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江浦縣誌·古迹誌』(雍正4年本)와 『江浦埤乘』(光緖17年本)에 수록되어 있음.

青血化爲原上草. 푸른 피가 변하여 들판의 풀이 되었다오.
芳心寂寞寄寒枝, 꽃다운 마음 적막하게 차가운 가지에 머물러 있으니
舊曲聞來似斂眉. 옛가락(해하가) 들려오면 (우희가) 눈썹을 찌푸리는 듯.
哀怨徘徊愁不語, 슬픔과 원망 속에 배회하며 근심스러워 말도 하지 못하고
恰如初聽楚歌時. 마치 초나라의 노래를 처음 듣던 그때와 같네.
滔滔逝水流今古,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흐르는데
漢楚興亡兩丘土. 흥한 한나라도 망한 초나라도 둘 다 흙언덕일 뿐.
當年遺事久成空, 그 당시의 지난 일 공허하게 된 지 오래되었으니
慷慨樽前爲誰舞! 술잔을 앞에 놓고 강개하노니, 누굴 위해 춤을 추었는가!

위와 같은 詠史詩는 시인에게 典型的인 사건을 포착하여 그 史實을 간단 명료하게 개괄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曾鞏은 이 시에서 楚漢爭霸에서 楚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楚 霸王 項羽와 虞姬의 愛情 悲劇을 精練된 언어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반부 4구에서는 '鴻門의 연회', '垓下에서의 포위', '咸陽 궁전의 燃燒' 등 楚漢戰爭의 역사적 사건을 간명하게 형상화한 점이 돋보인다. 이어서 제5, 6구에서는 項羽의 모질고 강한 면모를 비판하면서 통치자는 仁義를 표방하는 仁政을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7구에서는 項羽가 '어렸을 때, 글과 검술은 배우지 않고 만인을 대적하는 병법을 배우겠다고 하였지만 끝내 배우지 않은' [44]사례를 들면서 項羽를 비판하고 있다. 제9구에서 제16구까지는 자결한 虞姬의 흘린 피가 한 송이 꽃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을 묘사하며, 동정과 연민의 정을 기탁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인 제17구에서 제20구까지는 도도하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지금은 흙언덕에 불과한 그 옛날의 楚漢 땅을 회고하면서 덧없는 人生無常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음의 「讀五代史」[45] 에서는 五代史를 읽은 후, 五代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唐衰非一日, 당나라가 쇠망한 건 하루만이 아니고
远自开元中. 멀리 개원으로부터 시작되었네.
尚传十四帝, 그래도 열넷 황제까지 전수되었지만
始告曆数穷. 마침내 하늘이 황제 계승이 다했음을 알렸네.
由来根本强, 근본이 강했기 때문에
暴戾岂易攻？포악으로 어찌 공격하기가 쉬웠으리오?
嗟哉梁周间, 아아! 양, 주 오대 사이에
卒莫相始终. 결국 서로 처음과 끝이 없었네.

---

44) 『史記·項羽本紀』: 항적(字 項羽)이 어렸을 때, 글을 배웠으나 다 마치지 못하고 검술을 배우려 갔으나 또 다 마치지 못하였다. (숙부)項梁이 노하자 항적이 "글은 이름을 쓰는 것으로 족할 따름이며, 검은 한 사람만을 대적할 뿐으로 배울만하지 못하므로,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項梁이 항적에게 병법을 가르치자 항적이 매우 기뻐하였으나, 대략 그 뜻을 알자, 또한 끝까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項籍少時, 學書不成, 去學劍, 又不成. 項梁怒之, 籍曰 : 書足以記名姓而已, 劍一人敵, 不足學, 學萬人敵. 於是項梁乃教籍兵法, 籍大喜, 略知其意, 又不肯竟學).

45) 『曾鞏集』, p.43.

兴無累世德, 흥성했으나 대대로 덕을 쌓지 않았으니
灭若烛向风. 촛불이 바람에 꺼지는 듯 멸망하고 말았네.
當时积薪上, 당시 땔나무를 쌓아놓고서
曾寧废歌钟. 일찍이 오히려 편종을 없애려 하였네.

시의 전반부에서는 唐나라 玄宗이 開元 年間에 盛世를 구가했지만 양귀비와 향락에 빠짐으로써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玄宗 이후에도 强國富民의 정책으로 그런대로 14대까지 황제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고 읊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의 五代 시대에 각 왕조가 짧은 통치 역사 속에 멸망하고 만 요인을 '대대로 德을 쌓지 않아서, 强國이 되지 못한 데'에서 찾고 있다. 曾鞏은 이 시 속에서 唐代, 五代의 역사적 흥망성쇠를 빌려, 積弊가 만연된 북송 현실을 우려하면서 통치자에게 覺醒을 촉구하며 强國富民의 정책을 펼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本稿는 曾鞏의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평가하는 단계의 일환으로, 그의 詠史詩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曾鞏의 詠史詩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歷史觀을 파악하고. 이어서 역사인물·역사사건 등이 그의 詠史詩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形象化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曾鞏의 歷史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曾鞏의 歷史觀은 儒家 道德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曾鞏은 南朝 梁나라와 陳나라의 敗亡을 역사적 사례로 들고, 敗亡의 원인은 바로 儒家之道 즉 先王의 紀綱과 예의, 풍속의 미덕, 통치 법도의 不在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曾鞏은 또한 古今의 治亂興衰, 是非得失을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후대에 借鑑이 되기 위해서는, 史家의 資質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바람직한 史家가 갖춰야할 요건으로 曾鞏이 제시한 明理, 適用, 通義, 發情은 바로 儒家 道統의 계승자인 曾鞏에게 있어서 '文以載道' '道文並重' 사상의 史學上의 體現이라고 하겠다.

曾鞏의 詠史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제별로 크게 역사 인물에 대한 褒貶, 역사 사건에 대한 평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각 주제별로 그의 詠史詩 속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曾鞏은 詠史詩 속에서 諸葛亮, 管仲, 鮑叔牙, 伯夷, 叔齊 등의 忠臣, 揚雄, 顔回, 子貢, 子思 등의 학자, 陶淵明, 李白 등의 문인을 비롯한 역사 인물을 평가함으로써 北宋 당대에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忠臣의 사례로는, 諸葛亮의 事蹟을 통하여 人材 발탁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管鮑之交를 통하여 爲政者들에게 반목과 질시를 탈피하여 共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忠節를 지킨 伯夷와 叔齊를 表揚함으로써 당대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다. 학자의 사례로는, 顔回을 비롯한 揚雄, 子貢, 子思 등 학자들의 行績을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學者

像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인으로서는 陶淵明, 李白 등의 인생역정을 반추하면서 자신을 省察하고 인생철학을 기탁하였다.

둘째, 曾鞏은 역사 사건과 역대 왕조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를 詠史詩의 중심 제재로 삼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以史鑑今하고자 하였다. 즉 王昭君의 出塞故事, 屈原의 直諫을 경청하지 않은 楚나라 懷王의 昏庸, 楚漢爭霸, 五代의 흥망성쇠 등의 역사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北宋 당대의 통치자들에게 警覺心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曾鞏의 詠史詩 역시 대부분의 詠史詩처럼 역사 인물이나 역사 사건을 반추하고 비평함으로써 以史鑑今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띤다고 하겠다. 그러나 曾鞏 詠史詩의 특징으로는 역사 인물이나 역사 사건을 짧은 편폭 속에서 함축적으로 簡明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曾　鞏 撰, 陳杏珍·晁繼周 點校,『曾鞏集』, 中華書局, 2004.
喻進芳,『論曾鞏的文化品格與詩文創作』,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08.
倪惠穎,『論曾鞏前後期詩風演變』, 寧夏大學 碩士論文, 2004.
李艶敏,『曾鞏詩歌研究』, 西北師大 碩士論文, 2005.
李天保,『曾鞏文學思想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5.
江西省文學藝術研究所 編,『曾鞏研究論文集』, 江西人民出版社, 1986.
祝尙書 譯註,『曾鞏詩文選譯』, 鳳凰出版社, 2011.
傅樂成 著, 辛勝夏 譯,『中國通史』, 지영사, 1998.
涂木水,「曾鞏詩歌內容膚說」,『撫州師專學報』, 제4기, 1988.
倪惠穎,「論曾鞏前期詩歌創作」,『船山學刊』, 제63권 제1기, 2007.
高國藩,「論曾鞏詩及其民本思想」,『撫州師專學報』, 제46기, 1995.
陳　斐,「試論曾鞏詩歌的淵源」,『廈門教育學院學報』, 제11권 3기, 2009.
葉建華,「曾鞏的史學活動試探」,『河南大學學報』, 1989, 제1기.
喻進芳,「論曾鞏的編輯理念及其現實主義」,『江漢大學學報』, 제31권 제3기, 2014.
王志略,「曾鞏歷史學說活綜述」,『貴州師範大學學報』, 1999, 제1기.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曾鞏, 詠史詩, 歷史人物, 歷史事件, 以史鑑今
	영문	Zeng Gong, Historical poems, Historic characters, Historic events, Take history as a lesson

Zeng Gong's Historical Views & Poems

Oh, Heon-Pil

Zeng Gong is a characteristic poet in the field of poems of Northern Song Dynasty. However, since the image was highlighted as one of the TANGSONGBADAJIA, it focused on research on prose, and low praise for poems, and studies of poems were insignificant. However, analysis of his poems suggests that the originality and artistic style of creativity are excellent. Because of this, this thesis made comprehensive and deep study on Zeng Gong's poems, attempts to study particularly about historical poems. Zeng Gong's historical poems express ideas and feelings by describing objects, use the past to satirize the present, thus have very practical significance. Zeng Gong wanted to use the historic event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dynasty as the central topic and objectively evaluate it to make it a mirror of the past. By evaluating historical figures, he wanted to use them as a lesson in Northern Song Dynas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that it portrays historical figures and historical events in a short and concise manner.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오헌필 / 吳憲必 / Oh, Heon-Pil		
	소 속	덕성여자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ohp@duksung.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19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